

삼성, ‘갤럭시 Z8·워치9’ 사전 판매 더블 스토리지·AI 구독클럽 등 혜택

내달 3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폴더블 라인업 첫 울트라 모델 추가
4일 수령·개통… 7일 국내 공식출시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 등의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더블 스토리지와 AI 구독클럽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 ‘갤럭시 워치9’의 사전 판매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내달 7일이다.

이번 갤럭시 Z 시리즈는 폴더블 라인업에 처음으로 ‘울트라’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대화면과 생산성, 카메라 성능을 강화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를 앞세워 초프리미엄 폴더블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바이올렛 셰도우, 그라파이트, 크림, 그린 셰도우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2GB 메모리 기준 256GB 모델 257만7300원, 512GB 모델 283만300원이며, 16GB 메모리 1TB 모델은 345만1800원이다.

‘갤럭시 Z 폴드8’은 라벤더, 그라파이트, 크림, 피스타치오 등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12GB 메모리 기준 256



삼성전자는 내달 3일까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의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GB 모델 227만8100원, 512GB 모델 253만1100원, 16GB 메모리 1TB 모델 315만2600원이다. ‘갤럭시 Z 플립8’은 핑크, 그라파이트, 크림, 민트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12GB 메모리 기준 256GB 모델은 168만3000원, 512GB 모델은 193만6000원이다.

8세대 ‘갤럭시 Z 시리즈’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사전 판매된다. 사전 구매 고객은 내달 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폴드8 울트라와 폴드8의 512GB 모델 구매 고객은 31만700원을 추가 결제하면 1TB 모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12GB와 1TB 모델 간 가격 차이의 절반 수준이다.

사전 판매와 함께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도 시작한다. 이번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처음 도입한 3년형 상품을 갤럭시 Z 시리즈에도 적용하고 분실 보상까지 추가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갤럭시 워치9’도 같은 기간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8월 7일 공식 출시한다. 워치 울트라2는 LTE 모델(96만9100원), 워치9는 44mm와 40mm LTE·블루투스 모델로 출시된다.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밴드 할인 쿠폰과 워치페이스 구독권 등을 제공하며, 삼성전자는 SNS 인증 이벤트 ‘위꾸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 폼팩터의 ‘갤럭시 Z 폴드8’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노하우가 집약된 8세대 폴더블폰 라인업을 사전 판매로 가장 빨리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더블 스토리지’ 할인,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할인 등 풍성한 혜택과 함께 신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지난 14일 중국 광저우 DFEH 본사에서 열린 라이양 원전 5·6호기 증기발생기용 단조품 계약 체결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DEI 황초 수출입담당, DFEH 임지강 구매부부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임성재 주단영업팀장. 뒷줄 왼쪽부터 DEI 손진평 수출입담당 부사장, DFEH 진려하 구매부사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영철 주단BU장.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 中 원전시장 본격 진출

라이양 원전에 초대형 단조품 공급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중국 라이양 원전 5·6호기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용 초대형 단조품을 공급한다. 지난해 라이양 3·4호기에 이어 후속 호기 물량까지 연속 수주하며 중국 원전 시장에서 초대형 단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중국 동광전기그룹 계열사인 DEI, DFEH와 중국 산둥성 라이양 원자력발전소 5·6호기용 증기발생기 초대형 단조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채널헤드 4개와 튜브시트 4개 등 총 8개의 초대형 단조품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채널헤드는 원자로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로 유입·유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증기발생기 하부 단조품이다. 튜브시트는 수천 개의 전열관을 지지하고 원자로 냉각재와 2차 계통의 물을 분리하는 핵심 단조품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조품은 직경 5m, 최대 130톤 규모의 초대형 제품이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해 터빈을 구동하는 원전 핵심 설비다.

김종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은 “라이양 3·4호기에 이어 5·6호기 핵심소재 공급 계약까지 이어지며 중국 원전시장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축적된 제작 경험과 초대형 단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S에코에너지, 라이너스 300억 상호투자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속도

LS에코에너지가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략적 상호 투자를 통해 원료 조달부터 금속 생산까지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희토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LS에코에너지는 라이너스와 각각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상호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체결한 희토류 사업 협력의 후속 조치다.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LS에코에너지는 라이너스

와 약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합의하고 희토류 사업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생산법인 LSCV 부지에 희토류 금속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LS에코에너지는 비중국권 최초로 방산용 사마륨 금속을 생산하고, Dy·Tb, NdPr 등 희토류 금속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투자는 라이너스와 LS에코에너지가 희토류 사업을 함께 키워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인터, 무역업무 디지털 전환 속도

블록체인·AI 활용 인프라 검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무역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실제 거래 환경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역금융 인프라를 검증하며 거래·정산 효율화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LG CNS와 함께 실제 글로벌 거래 환경에 블록체인·AI 기술을 적용하는 무역금융 인프라 기술 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공동원장 기반 거래 상태 공유 ▲매출채권 실물연계자산(RWA) 토

등 3개 영역에서 글로벌 무역 업무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실증했다.

이번 검증은 글로벌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정산·서류 검토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자동화해 운영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PoC는 실제 무역 현장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운영 효율화 효과와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파일럿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SK 이노E&S, 에너지·석화 공급망 다변화 앞장

LNG 수급 등 바로사 프로젝트 성과
초경질유 30만배럴 국내 입항 예정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에 이어 초경질유까지 국내로 들여오며 에너지·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유·석유화학 원료 수급 구조에서 호주산 자원 도입이 확대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자원 안보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오는 8월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로, 컨테이너로도 볼린다. 일반 원유보다 가볍고 나프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

어 석유화학 원료와 석유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SK이노베이션 E&S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연간 초경질유 110만 배럴 가운데 일부다. 바로사 가스전의 연간 초경질유 생산량은 약 300만 배럴이며, SK이노베이션 E&S는 보유 지분 37.5%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도입된 초경질유는 SK인천석유화학의 초경질유 전용 설비에 투입된다. 이 공정을 거쳐 추출된 나프타는 파라자일렌(PX) 등 고부가 화학제품 생산에 쓰이고, 휘발유와 항공유 등 석유제품 제조에도 활용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올해부터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연간 도입 물량은 130만 톤으로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한다. 바로사 프로젝트 계약기간 20

년을 기준으로 하면 SK이노베이션 E&S가 확보한 자원은 LNG 2600만 톤, 초경질유 2200만 배럴 규모다.

호주산 LNG와 초경질유의 국내 도입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수급 불확실성과 운송비 상승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적인 교역 인프라를 갖춘 호주산 자원 확보가 원료 조달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바로사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해 상업 생산과 국내 도입까지 연결한 사례”라며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와 초경질유를 활용해 자원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수급 안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확대

‘EHS 올인원’ 실증… 소음 등 검증

삼성전자가 공동주택 냉난방의 전기화 전환에 대비해 아파트 환경에서 히트펌프 시스템 검증에 착수했다. 건물 부문 탄소중립 기조와 전기 기반 난방 확대 움직임에 맞춰 실제 주거 환경에서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보급 기반 마련에 나

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인 ‘EHS 올인원’ 실증에 나섰다

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에 ‘EHS 올인원’을 설치하고 실제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성

된 환경에서 ▲냉난방과 급탕 성능 ▲에너지 효율 ▲사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난방 성능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비롯해 ▲냉방·급탕 성능 ▲전력 소비량 ▲소음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